

노형욱 장관 인천공항 찾아 항공산업 재도약·국민안전 강조

- 제4활주로 본격 운영(6.17)에 앞서 4단계 건설·방역 등 주요현장 점검
- 항공산업 재도약 선봉장 역할 당부·빈틈없는 방역과 건설현장 안전 강조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본격 운영(6.17)을 앞둔 제4활주로나 K-방역현황을 점검했다.
- 먼저, 노 장관은 K-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 방역현장을 찾아 ‘해외 입국자 방역과 검역 현황을 점검하면서,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’라고 밝혔다.
- 또한, “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, 방역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”한다고 당부했다.
- 이어,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중인 4단계 건설현장과 항공안전 컨트롤 타워인 관제탑을 방문하여, “항공운항 안전성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하며,
- “상시 안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,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했다.
- 아울러, 노 장관은 “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하고,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이 큰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인천공항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산업 재도약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”을 주문했다.

2021. 6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